

## 조계종 종단운영 변화모색 발걸음

15~16일 종단지도자연수, 천태·진각종 등 방문  
이웃 종단과 상호 협조 통해 부처님 가르침 구현

조계종 종진스님 등 150여 명이 천태·진각종 등을 방문했다. 또, 원불교 현황 등을 브리핑 받고 대중공사를 가졌다.

조계종이 이웃종단을 대규모로 방문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이번 방문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종회위원장 보선 스님, 교육원장 현을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호계원장 범등 스님과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 중앙종회의원, 중앙교역직 스님과 재가종무원 등이 참석했다. 스님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비교종 간의 역사에도 꾸준히 성장해온 이들 종단의 성장동력과 노하우 등을 살펴봤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3월 15~16일 종단지도자연수를 갖고 진

각종 종인원, 천태종 구인사,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5일 오전 9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입재식에서 “천태종과 진각종은 비록 역사는 짧지만 수십 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최근에는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들의 성장에 담긴 원동력을 이해해 참고하고, 이웃 종단과 상호 협조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이 땅에서 구현하며 이를 기초로 사회와의 소통과 상생을 도모하는 자리”라며 “이번 연수가 역사와 사회에 부응하고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종단운영 시스템의 질적 변화



조계종스님들, 이웃종단 찾은 까닭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교육원장 현을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호계원장 범등 스님과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 중앙교역직 스님과 재가종무원 등 150여 명이 3월 15일 진각종 통리원과 천태종 구인사를 방문했다. 종단지도자연수 차원에서 진행된 이번 방문을 통해 연수단은 천태·진각종의 성장동력을 살펴보고 조계종 총무원과의 접촉 등을 고민했다. 연수는 16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대중공사를 끝으로 회향했다. 사진은 좌측부터 연수단의 진각종 통리원과 천태종 구인사 방문 모습. 조동섭 기자



의 계기를 만드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올해는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으로 종단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서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진하는 한해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자성과 쇄신을 통한 한국불교 중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외적으로 국민·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종교로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입재식 후 연수단은 진각종 종인

원을 찾아 탑주심인당에서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로부터 진각종 현황과 종단운영시스템 등을 정취했다.

연수단은 진각종에 이어 중앙 60여 년 만에 한국불교 3대종단으로 자리매김한 천태종 본산 구인사를 방문했다. 연수단은 구인사 도착 후 천태종 총무원장직무대행 무원 스님, 교무부장 유정 스님, 감사위원 용문 스님 등의 안내로 설법보전을 참배하고, 광명전·대조사전·역대 조사전을 차례로 둘러봤다.

조계종 연수단은 진각종과 천태종 방문에서 >문화 등 분야별 예산 편성 비중 >승려노후복지 체계 >승려교육 및 수계 체계 등에 질문을 쏟아내며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특히, 진각종에서는 중앙집권체제를 통한 종단 운영, 천태종에서는 재가신도를 주축으로 한 사찰 운영에 연수단의 이목이 집중됐다.

연수단은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으로 자리를 옮겨 원불교 현황을 청취했다. 이어 연수단은 불교사회연구소장 범안 스님의 총선·대선 등

선거 관련 기초법제를 듣고, 대중공사 후 행사를 회향했다. 진각종·천태종 방문과 달리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의 범안 스님의 기초법제와 대중공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이번 연수 계획 발표 후 조계종 내부에서는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조계종)보다 역사도 짧고 규모도 작은 종단에서 무엇을 배우겠느냐.”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등 불만이 적지 않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전망

도 있었다.

하지만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자성과 쇄신 결사를 바탕으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무마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 전 반발과 달리, 연수 과정에서 종단스님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수가 조계종 총무원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 4대 종교 한자리서 ‘탈핵’ 선언

2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합동세미나서

4대 종교가 한자리에 모여 탈핵·탈원전 선언문을 발표한다.

불교생명윤리협회(공동대표 범음·박광서)는 ‘세계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리는 3월 26일 오후 2시 불교 개신교 원불교 가톨릭 등 4대 종교 합동 ‘탈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탈핵·탈원전 선언문은 이날 행사에서 발표된다.

행사에는 >불교 범음 스님(불교생명윤리협회 공동대표) >개신교 장윤재 목사(한국기독교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 >원불교 최서연 교무(원불교교인센터소장) >가톨릭 양기석 신부(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한다.

범음 스님은 “핵은 단 한 번의 사고로 모든 생명체는 물론 땅과 물과 공기까지 피륙시킴으로서 현재는 물론 미래에 까지 회복이 불가능한 죽음을 만든다”며 “한

국종교계는 ‘핵’의 위험성을 널리 알려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같은 죽음의 ‘핵 재앙’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인류와 못 생명을 구하고자 한다”고 행사취지를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 불교생명윤리협, 고리원전 사고 은폐 비판

불교생명윤리협(공동대표 범음·박광서)은 최근 고리 원자력 발전소 전원사고 은폐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윤리협은 성명서에서 “2월 9일 고리 원전 제1호기에서 발생한 전원 중단사고에 대해 즉시 보고 및 공개하지 않고 발전소장 등 간부들이 은폐를 모의했다는 사실은 국가시스템과 공직자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 경허 스님 열반 100주년 행사 시작

26일 선사화전, 유적지 순례·학술세미나 등

한국불교 중흥조 경허 선사의 열반 100주년 기념사업이 3월 26일 선사화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경허스님열반100주년기념사업회(추진위원장 지운·수석사 주지, 이하 기념사업회)는 3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에서 기념 선사화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1면**

이와 함께 기념사업회는 새 콜롬비아대 로버트 서먼 교수를 초청해

경허 스님 유적지를 돌아보고 사상을 되새기는 행사를 갖는다. 이를 위해 서먼 교수는 18일 내한했다.

로버트 서먼 교수는 방한 기간 동안 경허 스님의 유적지 순례를 중심으로 수석사 방장 설정 스님과의 대담, 동학사 비구니스님들과의 만남 등을 가진다. 서먼 교수의 한국 내 일정은 KBS가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부처님오신날 특집 프로그램으로 방영할 예정이다.

경허 스님 열반100주년 기념사업

은 6월 14일 조계사에서 열리는 스님 다례제로 절정에 다를 전망이다. 기념사업회는 다례제를 전후해 정본(경허집) 발간도 앞두고 있다.

승산 스님 제자를 중심으로 외국 인스님들이 2박 3일간 한자리에 모여 수행을 통해 경허 선사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행사도 6월 중 열린다. 또, 수석사 성보박물관에서는 경허·한암 스님 등 유품이 전시된다. 경허 스님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학술세미나는 가을 중 열린다. 행사는 조계종 교육원이 주관해 개최한다. **조동섭 기자**

## 법정 스님 생가(生家) 복원된다

전남 해남군(군수 박철환)은 “무소유의 삶을 실천한 법정 스님 생가를 복원기로 하고 지자체와 군의원, 사회·기관단체장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3월 16일 밝혔다.

해남군이 법정 스님 생가 복원을

위해 구성된 추진위는 민·관 관계자 및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추진위는 정관과 규약 제정 등을 거쳐 스님의 생가 복원과 추모사업 등에 나설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법정 스님 생가

## “국가·자기미래 결정하는 공정선거”

7대 종교지도자 대국민 호소문 발표

7대 종교지도자들이 4·11일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공정한 선거문화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 의장 자승·조계종 총무원장, 이하 총지협)는 3월 9일 롯데호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와 간담회를 갖고 ‘바르고 깨끗한 선거 실현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총지협은 호소문을 통해 “국회의원선거는 국정을 견제·감시하는 의회의 일꾼을 뽑는 선거로 국가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국민이 희망과 꿈을 갖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적인 선거로 치러지길 기대한다”며 “민주정치 발전과 국민 화합을 위해 바르고 깨끗한 선거 실현에 우리 모두 동참하자”고 당부했다.

### 880호 CONTENTS

종단 성철 스님 탄신100주년 기념법회	2
시방세계 계주불교포교결집대회· 순례단 장립	5
학술·문화계 방영준 성신여대 교수 “자비없는 불교는 없다”	7
종립대학을 가다 금강대학교	12
신상품 LED인등·전구	
한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새 연재 정찬주의 아쇼까대왕 유적답사 13면

大韓佛敎曹溪宗 **봉녕사**

## 한국불교 비구니 승가교육의 산실로 우뚝설 수 있도록 인재발사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명실상부 비구니 양성 도량으로 자리한 봉녕사에 신입생을 보내주는 은사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후학양성과 봉녕사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시는 봉녕사 선우회 동문스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모든 대중은 세주당 묘엄 크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봉녕사를 승가교육의 요람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묘엄 크스님 관련 자료를 찾습니다**

크스님의 흔적이 남아 있는 사진이나 기록물을 소장하고 계신 스님들 또는 신도님들께서는 봉녕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봉녕사 총무소 ☎ 031)256-4127, 242-5412  
이메일 : bong4127@hanmail.net

봉녕사 승가대학 학장 도혜 · 금강울학승가대학원 울원장 적연 · 주지 자연 대중일동 합장